“신안 천일염, 느리게 익어가는 착한 소금”

김종서 교수 ‘소금의 인문학’ 학술 발표

“인간생존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무기물”

“햇빛과 바람이 바닷물을 익혀주기 기다리면 시간의 레일을 타고 마침내 눈부시고 가뿐한 결정체로 찾아와 주는 귀빈.”(소설가 박범신)

김종서 성균관대 교수는 최근 한국18세기학회(회장 안대회) 주관으로 ‘18세기의 맛’을 주제로 열린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소금의 인문학’을 통해 선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인간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무기물이자 조미료’인 소금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고찰, 눈길을 끌었다.

◇햇빛과 바람의 결정체=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소금은 서해안 등 대부분 해안지방에서 만들어졌다. 현재와 같이 햇볕에 바닷물을 증발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갯펄에 바닷물을 가두고 거르고 다시 바닷물을 끓이는 과정을 거쳐 ‘자염’(煮鹽)을 만들었다.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조선후기에는 서해안 소금이 다량 공급됐다.

소금을 거래해 이윤을 취하는 소금장수들을 통해 해안에서 내륙지방으로 운반되며 ‘소금길’이 만들어졌다.

소금의 유통은 젓갈·장아찌·된장·간장 등 염장식품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선박에서 수산물 부패를 막는 방법은 젓갈로 담그거나 생선을 소금에 절이는 염간(鹽乾)이 최선책이었다. 지방마다 김치 맛이 다른 것은 기후와 젓갈과 양념 넣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김치와 젓갈 등은 모두 다 소금이 탄생시킨 우리의 음식이다. 시고, 짜고, 달고, 맵고, 짠맛, 단맛 등은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있어도 젓갈의 콤콤한 맛, 장아찌의 짭짜름한 맛은 표현할 길이 없다. 문화가 담긴 말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소금, 염장식품 발달 영향=‘소금을 팔러 나섰더니 비가 온다’ 등 소금, 젓갈에 관련된 속담도 생활 속에 살아있다. ‘오사리 잡놈’이라는 욕설은 유월 사리 때 잡히는 최상급의 ‘육젓’보다 못한 오월 사리 때 잡히는 새우에 빗대 ‘못할 짓 없이 지저분하게 구는 사람’을 의미한다. 소금을 생산하는 염부들은 소금을 인격을 갖춘 손님으로 여겨 ‘소금이 온다’고 표현한다.

김 교수는 “신안 천일염은 생태와 환경적 가치를 가진 우수한 소금으로 발전했다”며 “천일염은 태양과 바람, 바닷물이 만나서 느리게 익어가는 착한 소금”이라고 밝혔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강강술래 경연대회

최근 ‘진도 문화예술제’ 일환으로 열린 전국 강강술래 경연대회에 참가한 공연팀이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고 있다. 진도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인 강강술래는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진도군 제공〉

“자녀와 대화 이렇게 하세요”

무안교육지원청 Wee센터 ‘찾아가는 이동상담’ 운영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양진용) Wee센터는 최근 무안군 남악 일대에서 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희망찬 내일을 향해 GO! GO!’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실시했다.

이동상담은 무안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가(전문상담교사 2명·전문상담사 2명·사회복지사 1명·임상심리사 1명)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피부에 와닿는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번 이동상담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은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현재 나의 스트레스 정도를 알 수 있었고, 해소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부모 역시 “자녀와의 대화법을 알 수 있었다”며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였다.

무안교육지원청 Wee센터 는 ▲개인 및 집단상담 ▲이동상담 ▲학습 및 진로 ▲학교폭력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이 필요할 경우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안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상담실에 직접 찾는 방법 및 전화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신안교육청, 9개섬 순회 ‘에듀-페스티벌’ 호응

“시간과 장소가 없어 섬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소질을 마음껏 보여 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문상옥)이 장산지역을 시작으로 9개 권역별로 ‘방과후 학교 에듀-페스티벌’을 개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 동안 교육과정과 ‘방과후 학교’ 활동을 통해 갈고 닦은 다양한 교육활동 성과물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관현악 연주와 합창·댄스·사물놀이·오카리나 등 문화예술 활동은 학부모들의 갈채를 받았다.

한편 신안 ‘에듀-페스티벌’은 현재까지 장산과 지도, 흑산, 임자권역에서 진행됐다. 앞으로 ▲22일 하의도 ▲23일 안좌도 ▲27일 비금도 ▲28일 신의도 ▲30일 압해권역을 끝으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완도 특산물 온라인 연매출 30억 돌파 ‘눈앞’

지역 농수산물 판매 가파른 상승세

완도군의 온라인 연매출액이 3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완도군은 “올 1~10월 쇼핑몰 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늘어난 26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연말까지 3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군은 지난 2009년 ‘인터넷에서 가장 가까운 섬 만들기’란 슬로건을 내걸고 온라인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 덕택에 완도군 이숍을 비롯한 G-마켓, 옥션, 신세계몰,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완도 농수산물 판매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김종식 군수는 “온라인 브랜드 마케팅 전담팀의 꾸준한 시장개척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지역 특산물 판매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판매처로 입지를 굳혔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 서부취재본부장

목포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추진

2014년 착공 2018년 완공

목포항의 관문인 ‘서산·온금지구 친환경 주거단지 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목포시는 “전남도 도보(전남새뜰)에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이 최종 결정고시돼 본격적인 사업 토대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9년 11월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고시한 후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전남도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신청했다.

시는 도가 심의과정에서 제시한 조합원 구성 지연 등 통합 개발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3개 구역으로 분할, 개발할 방침이다.

시는 당초 임대주택을 446가구에서 501가구로 늘리는 등 모두 3128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총 가구 가운데 86.2%를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로 건립한다. 시는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2014년 상반기 착공,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전 북

남원 명품 찰곶감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에서 곶감을 건조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산내면 일대 510 농가는 100ha에서 감을 재배, 찰곶감을 만들어 연간 85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수학여행단 줄잇고 日 관광객 하루 20~30명 방문

남원 ‘남도관광 1번지’ 급부상

맞춤형 관광서비스 한몫

가을 관광철을 맞아 남원시에 수학여행단과 일본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다.

남원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휴가명소 9’,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99’ 등에 선정되면서 관광 중심도시의 명성을 회복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달 들어 5~9일 서울 면목초교 등 6개 학교 수학여행단 960여명이 방문해 역사, 문화, 판소리, 농업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주에는 서울 남성초교 등 4개교 수학여행단 500여명이 남원을 찾는다.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한·일 갈등에도 일본인 관광객은 매일 20~30여명씩 방문해 광한루원과 춘향 테마파크 등을 찾고 있다.

이 밖에도 도내 수학여행 전담 지도사 30명은 11일 남원을 방문해 실상사를 비롯해 흥부마을, 혼불 문학관, 황산정, 항공우주천문대 등을 방문하고, 분임토론도 할 예정이다.

수학여행 전담 지도사의 방문은 내년도 수학여행단 유치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관광객이 이처럼 남원을 찾는 데는 시의 맞춤형 관광서비스가 한몫하고 있다.

남원시는 수학여행 전담 창구를 마련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수학여행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남원시 장주호 문화관광과장은 “춘향제가 열리는 4~5월에 집중됐던 관광객이 연중 꾸준히 남원을 방문하고 있다”며 “다시 찾고 싶은 남원이 될 수 있도록 유·무형 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단신

전주 덕진실내수영장 12~28일 휴장

전주 덕진 실내수영장이 노후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와 시설물 정비 등으로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임시 휴장에 들어간다.

전주 덕진 수영장은 이 기간 동안 풀장바닥 누수관 보수를 비롯해 수영장 타일과 노후 난방배관 등을 교체할 예정이다.

특히 수영장 내부 청소도 3일간 실시해 더욱 쾌적하고 깨끗한 수영장을 만들 계획이다.

전주 덕진 실내수영장 관계자는 “임시휴장 기간동안 보수·교체 작업을 마치고 오는 29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장한다”고 말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 미장지구 체비지 2차 매각

군산시가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체비지(替費地)에 대한 2차 매각(조촌택지 포함)을 실시한다.

이번에 매각되는 체비지는 ▲근린생활용지 18필지 ▲상업용지 32필지 ▲단독주택 용지 109필지 ▲준주거용지 2필지 등 총 161필지이다.

이번 입찰은 15일 오후 4시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 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 전자 입찰(일반 공개경쟁입찰)로만 진행된다. 문의(063-450-6512)

/군산=박금석기자 · 전북취재본부장

남원 도통동 자치협, 애향장학숙 기금 기탁

남원시 도통동 주민자치협의회(회장 이춘겸)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7일 남원시 애향운동본부를 방문해 ‘애향 장학숙’ 건립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도통동 주민자치협의회는 자체기금 마련을 위해 정월 대보름 지신밟기와 새우젓갈 판매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춘겸 주민자치협의회장은 “하루빨리 ‘애향 장학숙’이 건립돼 지역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시민 모두가 장학숙 건립기금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부안군, 가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부안군은 오는 16일까지 폐비닐과 농약용기 및 봉지 등 가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다.

군은 청소차량 등 총 10대의 수거장비를 투입해 읍·면별 논과 밭, 하천 등에 버려진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게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올 영농활동이 마무리된 만큼 집중적인 수거활동에 나서기로 했다”며 “주민들 역시 자발적인 수거활동에 적극 참여해 ‘청정 부안’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강철수기자 knews@

부안군, 내년 예산확보 총력전

군수 등 중앙부처·국회 방문

주요 현안사업 지원 요청

부안군이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의 내년도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하는 등 공격적인 내년도 예산확보 행보에 나섰다.

김호수 부안군수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을 방문해 이경옥 차관보를 만나 부안읍 진입로(부안읍 선은리~동진면 내기리) 확·포장 공사에 필요한 20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김 군수는 “현 교차로 진입시에는 도로폭이 좁고 통로박스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 IC에서 부안읍 진입시 진입도로가 협소하다”며 “쾌적한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통행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부안읍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시급하다”고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또 김동수 군 기획감사실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춘진 의원실을 방문, 내년도 신규 및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신규 반영 요청사업으로는 격포~하서간 도로 확·포장 공사, 부안 신재생에너지 일반 산업단지 진입로 건설, 진서 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줄포 갯벌 습지보호구역), 친환경 부안 노을감자 육성 등이다.

또 증액 필요 사업은 흥덕~부안간 국도 확·포장 사업, 국립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 하수관거 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등이다.

/부안=강철수기자 knews@

순창 ‘훈몽재 옛터’ 道 문화재자료 지정

하서 김인후 선생 강학당

하서 김인후(1510~1560)선생의 강학당이었던 순창군 쌍치면 훈몽재 옛터가 최근 전북도 문화재 자료(제189호)로 지정됐다.

7일 순창군에 따르면 전북도 문화재위원회는 최근 제1분과 제15차 회의를 열어 도지정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건을 심의, ‘훈몽재 유지’(遺址)에 대해 전북도 문화재자료 지정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훈몽재 유지’가 조선 중기 호남성리학을 이끈 하서 김인후 선생의 교육과 관련된 유적으로, 전북지방 유학 발달사에 있어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음을 인정했다.

하서 김인후 선생은 인종의 세자시절 스승으로, 호남 출신으로 유일하게 문묘(文廟)에 배향된 조선 중기 대표적 성리학자이다.

1548년(명종 3년)에 순창 점암촌 백방산 자락(현재 쌍치면 둔전리)에 후학 양성을 위해 지은 강학당이 훈몽재다.

순창군은 지난 2009년 유지 인근에 훈몽재를 중건해 한학과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순창군 관계자는 “앞으로 내실 있는 훈몽재 운영을 통해 전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